

김 명 속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성인 남성의 피부지식과  
피부건강관리 행위에 관한 연구

2006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피부비만관리학 전공

김 속 은

성인 남성의 피부지식과  
피부건강관리 행위에 관한 연구

김 명 속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피부비만관리학 전공

김 속 은

## 감사의 글

뒤늦게 다시 시작한 배움의 터전에서 훌륭한 교수님들의 가르침과 동료들의 우정 어린 격려,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에 힘입어 작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발판을 제시해 주시고 논문이 완성될 때까지 세심하게 지도하고 이끌어주신 김명숙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큰 울타리 안에서 힘이 되어주신 안홍석 교수님과 이명희 대학원 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대학원 과정 내내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동기, 후배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을 심사해주신 배현숙 교수님과 논문을 쓰는 과정 속에서도 교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해 주신 서울 보건대학 김문주 학과장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친구, 친지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논문을 쓰는 바쁜 일정 속에서 많이 돌봐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의 말없이 사랑과 성원을 보내준 저의 어린 아들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전하며 늘 곁에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며 자랑스럽게 여겨주신 부모님에게 가장 큰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5월

김 숙 은 올림

## 논문 개요

현대를 살아가는 남성들은 치열한 삶의 경쟁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자 부단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외모관리를 통해 대인관계에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여성 못지않게 이미지 메이킹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 최근의 사회분위기가 웰빙(well-being)이라는 삶의 방식과 더불어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남성들의 관심도가 높아 가는 외모관리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피부 관리에 도움을 주는 피부지식과 자신의 피부상태에 알맞은 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손쉽게 익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따라서 현재 성인남성들이 갖고 있는 피부지식 정도 여부와 자신의 피부상태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는지 여부, 피부건강관리를 얼마나 행하고 있는지 여부, 또한 피부지식과 행위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자료는 우리나라 성인남성 20대에서 50대를 대상으로 연구대상자 315명을 선정하여 2006년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40일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통해 수립되었고 그 결과 분석 가능한 278부를 통계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패키지 spss12.0을 이용하여 정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별 분포가 20~29세가 46.2%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자가 51.1%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학생이 26.8%, 사무직이 30.8%였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46.2%였고 피부건강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남성이 56.8%이며 외모는 27%를 제외한 대

부분 남성이 ‘보통’이라고 생각했다. 주관적인 피부상태 분류는 건성이 22.7%, 지성이 21.9%, 복합성이 21.9%였으며 ‘모른다’고 답한 남성이 20.9%이었다

2) men's grooming을 참조한 피부측정표를 사용하여 피부상태를 진단한 결과 건성이 18.7% 복합성이 6.5%였으며 지성이 56.5%로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였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부지식에서는 20~29세가 가장 지식수준이 높았으며( $p < 0.001$ ) 미혼이 기혼보다 지식수준이 높았다( $p < 0.001$ ). 피부건강, 외모, 주관적 피부상태에 있어서는 각 문항별로 비슷한 지식수준이었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부건강관리 행위는 30~39세가 가장 행위수준이 높았으며( $p < 0.001$ ) 학력에 있어서는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자가 가장 행위수준이 높았다( $p < 0.001$ ). 직업은 사무직 종사자들의 행위 수준이 높았으며( $p < 0.001$ ) 기혼인 경우가 미혼인 경우보다 높았다( $p < 0.001$ ). 피부건강이나 외모, 주관적 피부상태에 있어서는 각 문항별로 비슷하게 관리가 행하여졌다. 피부상태에 따른 지식이나 관리행위는 각 상태 별로 비슷한 지식, 행위수준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5) 행위인자 분산분석결과 피부 자가관리 형태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남성의 경우 대부분 사회활동을 하는 관계로 시간적, 경제적 이유로 적극적인 관리보다는 소극적인 관리형태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진다. 또한 남성의 경우 피부에 대한 관심도가 여성에 비해서는 떨어져 전문적 피부관리를 한다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쓰는데 있어 매우 무관심한 것으로 보여진다.

6) 피부지식과 인자간의 상관계수는 행위인자2인 피부관리 전문성이 피부 지식 점수와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

7) 피부상태에서 중성피부를 정상으로, 건성, 지성, 복합성피부를 비정상적으로 규정하였을 때 피부상태에 따른 지식점수와 행위인자점수는 정상군과

비정상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자는 문제가 있는 피부를 가진 사람일수록 피부에 관한 관심이 높고 이에 따라 피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며 자신의 피부관리 행위도가 높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남성들은 필요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대한 관심도나 실천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상의 파악된 내용에서 주관적인 피부상태 분류와 피부측정표를 이용한 피부상태 측정을 비교하여 볼 때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피부상태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거나 아예 모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피부지식은 미혼의 경우가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수준은 기혼인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혼 남성의 경우, 배우자(여성)가 실제적인 피부관리를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남성의 경우 대부분 사회활동을 하는 관계로 시간적, 경제적 이유로 적극적인 관리보다는 소극적인 관리형태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고 전문적 피부관리를 한다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쓰는데 있어 매우 무관심한 것으로 보여진다.

보다 다양하고 기능적인 남성화장품의 개발을 통해 남성들의 관리욕구나 관심을 일깨워 주고 남성들이 자신의 피부상태에 따른 올바른 피부건강관리가 행하여질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방안 및 홍보자료개발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목 차

## 논문개요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 1
- 2. 연구목적 ----- 3

### II. 이론적 배경

- 1. 피부와 피부유형 ----- 4
- 2. 피부관리의 의미 및 필요성 ----- 5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자 ----- 7
- 2. 연구도구와 자료수집
  - 1)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 7
  - 2) 피부상태측정 ----- 10
- 3. 자료분석 및 통계처리 ----- 14

### IV. 연구 결과 및 고찰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5
- 2. 연구 대상자의 피부상태 측정 ----- 17
- 3. 피부에 대한 지식
  - 1) 피부지식 수준 ----- 18
  - 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피부지식 ----- 20
- 4.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행위
  - 1) 피부건강관리 행위수준 ----- 24
  - 2)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피부건강관리 행위 ----- 26

5. 피부건강관리 행위의 인자분석	29
1) 각 인자별 소속변인	30
2) 인자별 신뢰도	33
3) 행위인자의 분산분석	34
6. 지식과 행위인자 간의 상호관계	35
7. 피부상태에 따른 지식과 행위분석	36
V. 결론 및 제언	38
참고문헌	42
영문초록	
부록	

## 표 목 차

〈표-1〉 설문지내용	9
〈표-2〉 U존 피부상태 측정	11
〈표-3〉 T존 피부상태 측정	11
〈표-4〉 유분측정 기준점수	12
〈표-5〉 수분측정 기준점수	12
〈표-6〉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6
〈표-7〉 연구 대상자의 피부상태 분석	17
〈표-8〉 지식 정답 수준	19
〈표-9〉 전반적 지식수준	20
〈표-10〉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부지식	22
〈표-11〉 피부 상태에 따른 피부지식	23
〈표-12〉 피부건강관리 행위의 문항별 비율	25
〈표-13〉 전반적 행위수준	26
〈표-14〉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부건강관리 행위	28
〈표-15〉 피부상태에 따른 피부건강관리 행위	29
〈표-16〉 피부지식과 행위의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30
〈표-17〉 최종적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30
〈표-18〉 17개 문항만을 이용한 요인분석	31
〈표-19〉 행위의 인자 및 소속항목	32
〈표-20〉 피부건강관리 행위의 인자별 신뢰도	33
〈표-21〉 행위인자 분석	34
〈표-22〉 지식과 행위인자간의 상관계수	35

<표-23>피부상태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 시 지식점수 -----	36
<표-24>피부상태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 시 행위점수 -----	37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꾸고 유지하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명은진, 2000). 최근 사회 발달과 대중매체를 통한 미의 가치가 과대하게 부여됨으로 미를 추구하고 싶어하는 인간본능을 더욱 자극시키며 그에 대한 욕구와 관심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최근의 Well - Being 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에 따라 자신의 내, 외면을 개성적으로 표현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미에 대한 인식 역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받아들여져서 이제 이러한 관심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까지도 건강하고 탄력있는 피부와 외모 관리를 위하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되었다.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한 현대의 남성들은 이제 외모관리를 통한 자기경쟁의 가치를 높이며, 나아가 수 많은 대인관계에 있어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남성 전용 피부관리실을 찾는 남성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통하여 보듯이 우리의 신체건강에서 눈에 직접 보이는 피부의 건강은 미용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며, 특히 도시의 각종 오염원과 스트레스, 음주, 흡연에 지친 남성들의 피부관리는 이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한 새로운 관리가 필요할 때이다.

피부건강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는 생리적 요인, 영양학적 요인, 외부 환경적 요인, 심리적 요인, 생화학적 요인, 생활요인,

잘못된 피부관리 요인, 내과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남,여의 표면으로 나타나는 피부는 사춘기 전까지는 별로 차이가 없으나 사춘기가 되면서 남성은 안드로젠이라는 호르몬이 여성에게는 에스트로젠과 프로게스트론이라는 성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남성피부는 남성호르몬의 자극으로 여성 피부에 비해 피지 분비량이 2배 가량 많아 대부분의 남성들이 지성피부이면서 모공이 넓고 과도하게 분비되는 피지와 규칙적인 관리부족으로 인해 각질이 많이 쌓여 피부표면이 거칠고 두꺼운 피부상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피지선과 한선의 기능이 적당히 조화를 이루어 여성 못지않게 고운 피부를 가진 남성들도 있고 이와 반대로 피지와 수분이 부족하여 심히 건조감을 느끼는 건성피부를 가진 남성들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렇듯 남성들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피부상태를 가지므로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피부상태에 맞는 올바른 관리법을 통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 비해 대다수의 남성들의 현 실정은 그러하지 못하다. 외모관리를 통해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와 관심도는 높아 가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하게 생각하여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 그에 대한 교육이나 자료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현재 화장품시장에서 판매되는 남성 화장품들은 남성피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성피부용이 대부분인 관계로 자신의 피부상태와 맞지 않는 남성들의 경우 화장품선택에 곤란을 겪고 있다.

남성들의 자가관리의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피부에 관한 지식 및 관리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손쉬운 관리법을 익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남성화장품시장의 다양성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남성들에 관한

여러 방면의 실태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남성들이 피부건강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자신의 피부상태에 맞는 올바른 피부관리법을 통해 피부건강 개선 및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20대에서 50대까지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피부관련 지식과 피부건강관리 행위를 조사하고 피부상태를 진단하여 그에 따른 지식과 행위의 차이를 분석해 봄으로써 성인 남성들의 피부에 대한 관심도가 실제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성인 남성의 피부상태에 대해 알아본다
- 2) 성인 남성의 피부지식과 피부건강관리 행위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 3) 성인 남성의 피부건강관리 행위의 요인을 분류하고 분석한 후 요인별로 지식과의 상관성이 있는지 알아본다.
- 4) 성인 남성의 피부상태에 따른 지식과 행위의 수준을 알아본다.

## II. 이론적 배경

### 1. 피부와 피부유형

피부란 인체의 외부표면을 덮고 있는 조직으로서 모든 조직의 둘레를 감싸는 20.000cm<sup>2</sup>에서 22.000cm<sup>2</sup>에 이르도록 넓게 팽창된 조직이다. 피부는 인체를 둘러싼 단순한 ‘거죽’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신체기관 중 하나다 (Biokosmetik, 1991). 피부 표면은 육안으로 보면 단순하고 평평한 구조를 가진 듯 하나,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무수히 복잡한 그물 모양의 구조로 되어있다. 피부를 해부하여 그 단면을 관찰해보면 표피(epidermis), 진피(dermis), 피하조직(subcutaneous fat tissue)의 3층으로 구분된다 (김명숙, 2006).

피부는 그 피부에서 분비되는 피지의 양이나 수분함유량에 따라 건성, 중성, 지성 또는 복합성 피부로 분류되어지는데, 건성피부 유형은 피부에 유·수분량이 적어 건조감이 심하고 동절기나 환절기, 혹은 건조한 환경에서 피부에 각질이 많이 일어난다. 또한 지성피부 유형에 비해 모공이 작아 피부 결이 곱지만, 윤기가 없어 메말라 보이며 피부색이 밝고 허연 경우가 많다.

중성피부 유형은 평소에는 유·수분량이 균형 잡힌 피부유형으로 환절기에 변화가 심하며, 특히 여름에는 지성피부유형의 성향을, 겨울에는 건성피부 유형의 성향을 띠기 쉽다.

지성피부 유형은 과도한 피지분비로 인해 피부가 번들거리며 모공이 눈에 두드러지게 크다. 코 주변에는 거뭇거뭇한 검은 여드름이 자리 잡기 쉬우며 여드름, 뽀루지 등 피부 트러블이 잘 생기는 편이다. 지성피부 유형에는 단순히 피지 분비량이 많아 유분과잉인 일반 지성

피부유형과 유분은 많지만 수분이 부족해 피부내부는 건조한 수분부족형 지성피부 유형이 있다.

복합성피부 유형은 U존과 T존의 피부상태가 달라 얼굴이 부분적으로 번들거리면서 당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장 관리하기 까다로운 유형으로 여름에는 지성피부 유형을 겨울에는 건성피부 유형의 성향을 띠기 쉽다(Men's Grooming).

## 2. 피부관리의 의미 및 필요성

피부관리란 각각의 개인이 가지는 피부타입이나 증상에 맞게 작용하는 제품들을 선택하여 기계나 손을 이용한 다양한 마사지 등을 통해 피부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과학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건강한 피부는 충분한 수분을 함유하여야 하고 또한 적당히 피지가 분비되어서 표면은 매끄럽고, 긴장감과 탄력이 있으며 광택과 생기가 있어야 한다(황정원, 1998; 김종대 외, 1996). 하지만 건강한 피부라 할지라도 끊임없는 외부의 자극이나 스트레스, 잘못된 관리방법, 불규칙한 생활습관이나 식습관 등에 의해 순간 망가질 수 있다.

남성들의 경우 이러한 위해요인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생리적으로 여성에 비해 피지의 양이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각각의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 시킬 수 있도록 차별화하여 지속적이고 정확하게 손질하여야 한다.

피부의 생리를 이해하고 피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스스로 또는 전문가의 손을 빌어 피부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과정을 단순하게 표현해 보면 노화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피부도 역시 노화해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및 증상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피부관리를 통해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완화하여 보다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부관리의 필요성이자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Biokosmetik, 2000).

### Ⅲ.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20 ~ 50대 성인 남성 315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6년 3월5일부터 4월15일까지 40일간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대학생, 일반 사무원, 공장 근로자, 등 연령별, 직업별, 다양한 남성집단을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를 사전에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는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총 278부수를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 2. 연구도구와 자료수집

##### 1)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 내용은 연구대상자의 특성, 피부지식,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행위 등 3가지 영역으로 구분 하였다<표-1>. 본 연구의 설문지는 연구자가 국내외의 관련문헌에서 문항들을 발췌하여, 지도교수의 자문을 토대로 작성하여 연구도구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문항은 연령, 학력, 직업, 결혼, 피부건강, 외모, 주관적 피부상태 등 총 7개 문항이다.

피부지식에 대한 문항은 피부건강의 유해요인, 피부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피부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등 3개 항목을 기본내용으로

하여 20개 문항이다. 피부지식을 알아보기 위한 총 20개의 문항은 옳게 응답한 경우 각 문항마다 5점을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점을 부과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피부건강관리 행위에 대한 문항은 화장품의 선택 및 사용, 피부관리 전문성, 피부자가 관리형태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여 20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피부건강관리 행위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총 20개의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여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5점을 부과 ‘때때로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3점을 부과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1점을 부과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표-1> 설문지 내용

조사항목	내 용	문항수
일반적 특성	연령, 학력, 직업,	7
	결혼상태, 피부건강상태 외모상태, 주관적 피부상태	
피부 지식	피부 건강의 유해 요인	20
	피부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피부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피부 건강관리 행위	화장품의 선택 및 사용	20
	피부관리 전문성 피부 자가관리 형태	
계		47

## 2) 피부상태 측정

피부상태측정은 T존, U존의 피부상태를 묻는 총 8개 문항이며, 정확한 피부 타입의 측정은 기계적 측정에 의해 가능하지만 대략적인 진단은 자신의 피부상태를 자세히 관찰하고 문진에 답함으로써 어느 정도 가능하다.

다음에 제시된 8가지의 피부상태에 대한 내용을 잘 읽은 후, 얼굴 부위별로 어떤 상태인지 해당 란에 표시한다. 예를 들어, 오후가 되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매우 번들거리는 경우라면 1번 상태에 대해 U존과 T존 모두 ‘정말 그렇다’ (1점)에 표시하면 된다<표-2,3>.

<표-2> U존 피부상태 측정

피부 상태	뺨 / 턱 주변 (U 존)		
	전혀아니다	그냥그렇다	정말그렇다
1.오후가 되면 얼굴이 항상 번들거린다	1	5	7
2.먼지가 잘 달라 붙어 쉽게 더러워진다	1	5	7
3.모공이 넓고 거뭇거뭇한 피지가 많다	1	5	7
4.여드름이나 뽀루지가 잘 생긴다	1	5	7
5.건조하고 주름이 잘 생기는 편이다	7	4	1
6.피부결이 거칠고 푸석푸석하다	7	4	1
7.가을 , 겨울에는 각질이 하얗게 일어난다	7	4	1
8.세안 후 아무것도 안 바르면 피부가 당긴다	7	4	1

<표-3> T존 피부상태 측정

피부 상태	이마/코 부위 (T 존)		
	전혀아니다	그냥그렇다	정말그렇다
1.오후가 되면 얼굴이 항상 번들거린다	1	5	7
2.먼지가 잘 달라 붙어 쉽게 더러워진다	1	5	7
3.모공이 넓고 거뭇거뭇한 피지가 많다	1	5	7
4.여드름이나 뽀루지가 잘 생긴다	1	5	7
5.건조하고 주름이 잘 생기는 편이다	7	4	1
6.피부결이 거칠고 푸석푸석하다	7	4	1
7.가을 , 겨울에는 각질이 하얗게 일어난다	7	4	1
8.세안 후 아무것도 안 바르면 피부가 당긴다	7	4	1

8가지 항목에 모두 표시한 다음에는 아래와 같이 점수를 더해 기록하여 아래의 빈칸에 기입한다. A는 U존의 유분수준을, B는 T존의 유분수준을 나타내며, C는 U존의 수분수준을 D는 T존의 수분수준을 나타낸다.

1~4번까지의 U존 항목점수 → A

1~4번까지의 T존 항목점수 → B

5~8번까지의 U존 항목점수 → C

5~8번까지의 T존 항목점수 → D

부위별 유분수준은 부족, 적당, 과다의 3가지로 부위별 수분수준은 부족과 충분으로 나누어진다.

<표-4> 유분측정 기준점수

	1단계	2단계	3단계
A&B(부위별 유분수준)	4~12(부족)	13~19(적당)	20~28(과다)

<표-5> 수분측정 기준점수

	부족	충분
C&D(부위별 수분수준)	4~16	17~28

C와 D의 관계없이 A와 B가 모두 12 이하인 경우 → 건성피부 타입

A와 B의 값은 13~19 사이, C와 D의 값은 17~28 인 경우 → 중성피부 타입

C와 D의 관계없이 A와 B가 모두 20 이상인 경우 → 지성피부 타입

C와 D의 관계없이 A와 B의 값이 2단계 이상 차이나는 경우 → 복합성 피부 타입

### 3. 자료분석 및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분석은 모두 통계분석패키지 spss12.0을 이용하여 정리 분석하였으며 항목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피부관련 특성은 빈도분석 실시하여 빈도 및 백분율을 통해 살펴보았다.

둘째, 피부에 대한 지식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각 문항에 대한 빈도와 정답율을 구하였으며 전반적 피부지식을 살펴보기 위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피부상태에 따른 피부지식의 차이 검증을 위해 ANOVA(F검정)을 실시하였다(t검정은 제곱 값을 취하여 F검정으로 통일시켰음).

셋째,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행위수준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각 문항에 대한 빈도와 정답율을 구하였으며 전반적 피부건강관리 행위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피부상태에 따른 피부건강관리 행위수준의 차이 검증을 위해 ANOVA(F검정)을 실시하였다(t검정은 제곱값을 취하여 F검정으로 통일시켰음).

넷째, 피부지식과 행위의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 최종 선택된 항목에 대한 cronbach's alpha계수를 구하였다.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행위인자의 피부에 대한 지식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번째, 지식과 행위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피부상태에 따른 정상피부군과 비정상피부군 간의 지식과 행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t검정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고찰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연령별 분포는 20~29세가 46.2%, 30~39세가 32.5%, 40~49세가 19.9%, 50세 이상이 1.4%이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가 1.4%, 고졸 이하가 7.9% 대재가 35.3%, 대졸이 51.1%, 대학원 졸이 4.3%,이었고 직업은 학생이 26.8%, 전문 기술직이 3.3%,사무직이 30.8%,판매서비스업이14.5%, 기타가 24.6% 이었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46.2% 미혼이 53.4% 시스템 결측이 0.4%로 나왔다.

피부건강상태는 ‘좋다고 생각한다’가 23%로 나왔으며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는 ‘매우 만족’이 11.5% ‘보통’이 73% ‘만족하지 않음’이 15.5%였으며 자신의 피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은 건성이 22.7%, 중성이 12.6%, 지성이 21.9%, 복합성이 21.9%, ‘모른다’가 20.9%로 조사되었다.

<표-6>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명	%
연령	20~29	128	46.2
	30 ~39	90	32.5
	40 ~49	55	19.9
	50세 이상	4	1.4
학력	중졸 이하	4	1.4
	고졸 이하	22	7.9
	대재(전문대 포함)	98	35.3
	대졸(전문대포함)	142	51.1
	대학원 이상	12	4.3
직업	학생	74	26.8
	전문 기술직	9	3.3
	사무직	85	30.8
	판매 서비스업	40	14.5
	기타	68	24.6
결혼	기혼	128	46.2
	미혼	148	53.4
	기타	1	0.4
피부 건강	좋다고 생각	56	20.1
	보통	158	56.8
	나쁘다고 생각	64	23
외모	매우 만족	32	11.5
	보통	203	73
	만족하지 않음	43	15.5
주관적 피부 상태	거서	63	22.7
	중성	35	12.6
	지성	61	21.9
	복합성	61	21.9
	모름	58	20.9

## 2. 연구대상자의 피부상태 측정

연구대상자의 피부상태 측정내용은 <표-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피부상태를 묻는 항목에서 자가측정한 피부상태는 건성(22.7%), 지성(21.9), 복합성(21.9) 등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측정이 되었는데 Men's Grooming을 참조로 하는 피부상태 측정 결과 건성(18.7%), 중성(18.3), 지성(56.5%)로 지성이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표-7>.

<표-7> Men' grooming 참조로 한 피부유형의 분류

항목	구분	명	%
피부상태	건성	52	18.7
	중성	51	18.3
	지성	157	56.5
	복합성	18	6.5
	합계	278	100

### 3. 피부에 대한 지식

#### 1) 피부지식 수준

##### (1)항목별 정답율

본 연구에서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은 피부의 유해요인, 피부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피부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에 대하여 총 20 문항을 조사 하였으며 항목별 정답율은 <표-8>와 같다

각 문항에 대한 지식은 스트레스와 피부상태와의 상관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정답율이 최고의 수치(71.5%)를 나타냄으로써 대다수의 남성이 스트레스에 잠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추론이 된다.

피부상태와 신체건강상태의 연관성(59.4%), ‘수면부족은 피부 건조화 및 탄력저하 현상을 초래한다’(57.4%)등 남성의 실제 생활에 연관된 음주, 흡연, 과로로 인한 피부손상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반면에 ‘정상피부란 pH 4.5~pH 6 사이 즉 약산성 상태를 말한다’(20.5%) ‘사우나를 자주 하는 것은 피부치짐의 원인이 된다’(26.4%) ‘비타민E (토코페롤)은 노화방지에 효과적이다’(28.8%)라는 지식수준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성인 남성의 피부관련 전문지식은 지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표-8> 지식 정답 수준

	문항	정답자수	(%)
1	정상 피부란 pH 4.5 - pH 6 사이 즉 약산성 상태를 말한다.	57	20.5
2	여드름이 있는 경우 유분 기가 없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114	41
3	수면 부족은 피부 건조화 및 탄력저하 현상을 초래한다	159	57.4
4	여름에는 그늘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	110	39.6
5	술을 많이 마시면 피부가 붉어질 수 있다	130	46.8
6	피부 노화는 25 세 전 후부터 시작된다	101	36.3
7	비누 세안은 자주 할수록 피부 건강에 좋다	133	47.8
8	피부 상태는 신체 건강 상태와 상관이 없다	165	59.4
9	흡연은 피부 표면의 수분 양을 감소 시킨다	135	48.6
10	지성 피부에 알코올 함유량이 적은 화장수를 사용한다	85	30.7
11	피부가 얇을수록 예민하다	111	39.9
12	매밀이 타올로 매일 목욕하는 것이 피부에 좋다	174	62.6
13	계절에 따라 피부에 변화가 생긴다	148	53.2
14	스트레스와 피부 상태와는 상관이 없다	198	71.5
15	여드름은 유전과는 관련이 없다	149	54.2
16	변비가 있으면 피부가 거칠어 진다	133	47.8
17	사우나를 자주 하는 것은 피부 처짐의 원인이 된다	73	26.4
18	비타민 E (토코페롤)는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다	80	28.8
19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진다	105	37.8
20	자외선에 피부를 태우는 것은 피부건강을 위해 좋다	161	57.9

### (1) 전반적 지식수준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수준은 100점 만점에 최소 0점에서 최대 95점까지 분포 하였으며 평균점수는 45.83이었다<표-9>.

<표-9> 전반적 지식 수준

정답 수 평균 (표준 편차)	45.83 ± 28.27
최소값	0
최대값	95

## 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피부지식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부지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 남성들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수준은 <표-10>에 보는 바와 같이 20~29세 사이의 남성이 58.94%로 가장 높고 40~49세의 37.77%가 두 번째이고 30~39세의 34.10%, 50세 이상의 23.7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01$ ). 이는 여성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명은진, 2000)의 결과 30~39세의 여성이 69.05%, 20~29세 여성 63.15%의 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왔다.

연령이 높을수록 피부가 노화하여 여러가지 피부문제를 일으키므로 피부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여성의 경우와 달리 20대 성인 남성, 특히 대학생의 경우는 이성간의 교제나 취업시의 면접 및 예비사회인으로서의 외적인 인상이나 이미지는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안드로겐(androgen)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여성과의 피부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지만

피부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20대 남성의 피부는 건강의 유지, 증진의 일환으로 관리 되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학력별로는 대재가 59.89%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p < 0.001$ ) 20대 남자 대학생들의 피부관련 지식과 피부의 건강상태가 신체의 건강에 관련이 있고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확한 피부에 대한 지식전달과 올바른 기초 화장품의 선택 및 사용법, 남성을 위한 새로운 피부관리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혼상태에서는 미혼이 58.70%로 기혼 31.3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p < 0.001$ )이 또한 여성의 경우 기혼(67.65%)이 미혼(64)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명은진, 2000)과 반대의 현상으로 미혼의 남성의 경쟁력으로 외모를 포함한 종합적인 자기관리가 사회 문화적인 트렌드가 됨으로써 피부관리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직업별로는 20대의 남자 대학생이 59.16%이고 판매 서비스업이 52.05%로 자신의 외모관리가 경쟁력으로 나타나는 직업 군이 피부건강관리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왔고 반면 사무직 21.90%, 전문 기술직 38.88%로 사회적으로 대인관계가 상대적으로 비교적 덜한 직업 군에서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이 낮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p < 0.001$ ).

피부건강여부, 외모여부, 주관적 피부타입과 피부지식은 유의한 수치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10>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부지식

항목	구분	명	Mean ± SD	F - value
연령	20~29	123	58.94±20.66	19.684*** (p-value <.000)
	30~39	89	34.10±28.32	
	40~49	54	37.77±30.32	
	50세 이상	4	23.75±34.24	
학력	중졸이하	4	63.75±7.5	12.831*** (p-value<.000)
	고졸 이하	21	48.57±24.60	
	대재(전문대졸 포함)	95	59.89±20.65	
	대졸(전문대졸 포함)	139	35.61±28.75	
	대학원 이상	12	42.08±36.27	
결혼	기혼	126	31.38±28.73	40.374*** (p-value<.000)
	미혼	143	58.70±20.96	
	기타	1	35	
직업	학생	72	59.16±22.25	34.767*** (p-value<.000)
	전문 기술직	9	38.88±26.19	
	사무직	84	21.90±23.33	
	판매 서비스업	39	52.05±23.50	
	기타	65	59.00±23.00	
피부건강	좋다고 생각	52	49.03±27.3	0.448 (p-value=0.640)
	보통	155	44.74±28.55	
	나쁘다고 생각	64	45.85±28.59	
외모	매우 만족	29	52.75±29.05	4.318 (p-value=0.014)
	보통	201	42.91±28.61	
	만족하지 않음	41	55.24±23.34	
주관적 피부상태	건성	63	46.03±27.07	0.815 (p-value=0.517)
	중성	34	48.82±28.28	
	지성	61	44.01±30.79	
	복합성	58	50 ± 28.20	
	모름	55	41.36± 26.93	

\*\*\* : p<0.001    \*\* : p<0.01    \* : p<0.05

(2) 피부상태에 따른 피부지식

피부관련 특성에 따른 피부에 대한 지식수준은 <표-11>과 같이 중성피부가 52.5%. 복합성 피부가 48.88%, 건성 피부가 44.43%, 지성 피부가 42.96%의 수치가 나왔지만 통계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1> 피부상태에 따른 피부지식

피부상태	명	Mean ±S.D	F- value
건성	44	44.43±27.51	0.562 (p- value=0.640)
중성	12	52.5±33.8	
지성	135	42.96±29.20	
복합성	18	48.88±28.77	

#### 4.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행위

##### 1) 피부건강관리 행위수준

###### (1) 항목별 행위 정도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행위는 20개 항목으로 ‘그렇다’ ‘때때로 한다’ ‘그렇지 않다’의 3등급으로 분류하여 실천행위의 정도를 측정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12>와 같다.

‘외부에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세안을 한다’ ‘세안 등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쓴다’는 문항에서 80.5%, 82.3%의 응답자가 ‘대체로 그렇게 한다’ (‘그렇다’ ‘때때로 한다’ 포함)고 응답하여 선행연구결과(이지수, 2003)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집에서 매일 스킨 로션을 바른다’ ‘피부건강을 위해 술 담배는 피한다’가 각각 42.4%와 41.2%의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정기적으로 피부관리실을 방문하여 관리를 받는다’ ‘피부 건강을 위해 비타민을 복용한다’가 각각 64.3%와 61.4%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고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를 찾는다’ ‘화장품 구입시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다’가 각각 58.7%와 56.5%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이같은 결과는 경제적 부담없이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는 소극적 피부관리에는 높은 실천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부담되는 전문적, 적극적인 피부관리에는 낮은 실천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12> 피부건강관리 행위의 문항별 비율

문항	그렇다		때때로 한다		그렇지 않다	
	명	%	명	%	명	%
1 피부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취침하고 기상한다	62	22.4	72	26	143	51.6
2 정기적으로 피부 관리실을 방문하여 관리를	78	28.2	21	7.6	178	64.3
3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104	37.5	38	13.7	135	48.7
4 세안 등 개인위생에 철저히 신경을 쓴다	140	50.5	88	31.8	49	17.7
5 외부에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세안을 한다	143	51.6	80	28.9	54	19.5
6 계절에 따라 피부관리 방법이 다르다	74	26.7	62	22.4	141	50.9
7 고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한다	28	10.1	103	37.2	146	52.7
8 화장품 구입시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다	26	9.4	94	34.1	156	56.5
9 화장품의 기능과 방법 등을 확인 후 사용한다	94	33.9	67	24.2	116	41.9
10 피부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을 복용한다	38	13.7	69	24.9	170	61.4
11 피부관리를 위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98	35.4	56	20.2	123	44.4
12 피부 건강에 대한 책이나 잡지를 보고 따라 해	13	4.7	115	41.5	149	53.8
13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를 찾는다	63	22.8	51	18.5	162	58.7
14 자극적인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다	80	29	111	42	85	30.8
15 집에서 매일 스킨, 로션을 바른다	117	42.4	99	35.9	60	21.7
16 피부 건강을 위해 술 담배는 피한다	114	41.2	41	14.8	122	44
17 자외선이 강할 때는 그늘을 찾아 걸어 다닌다	83	30	85	30	109	39.4
18 피부 자극 방지를 위해 너무 찬물이나 뜨거운	85	30	63	22.7	129	46.6
19 피부타입에 맞는 정확한 화장품을 사용한다.	98	35.4	55	19.9	124	44.8
20 본인이 간단하게 팩이나 마사지 등을 한다	33	11.9	132	47.7	112	40.4

## (2)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전반적 행위수준

피부 건강관리에 대한 행위 20개 항목을 '그렇다' 5점 '때때로 한다' 3점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하여 5점 척도로 측정된 결과 총 100점 만점에 최소22점에서 최대 88점까지 분포 하였으며 평균점수는 53.46점으로 조사 되었다<표-13>.

<표-13> 전반적 행위수준

정답 수 평균(표준 편차)	53.46±18.27
최소값	22
최대값	88

## 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피부건강관리 행위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부건강관리 행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 남성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행위 점수는 <표-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에 있어서는 30~39사이의 남성이 60.76으로 40~49세 55.77, 20~29세의 47.96 보다 높게 나타났다 ( $p<0.001$ ). 선행연구(이지수, 2003)의 대기업의 성인직장남성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을 때는 29세 이하의 남성들이 행위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는 다소 다른 결과였다.

학력별로는 대졸이 58.24 고졸의 47.54보다 높게 나왔으며 ( $p<0.001$ ), 직업별로는 사무직이 65.44로 판매 서비스업 49.25, 전문 기술직 43.42보다 높게 나왔다( $p<0.001$ ).

사무직이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규칙적인 세안과 음주 흡연절제 등의 소극적인 피부관리에 조금 더 여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혼상태에서는 기혼이 58.93으로 미혼 48.6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p < 0.001$ ), 남성의 경우 기본적인 피부관리는 배우자의 관심과 관리도 피부건강관리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피부건강, 외모 주관적 피부상태에 관한 수치는 통계상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표-14>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부건강관리 행위

항목	구분	명	Mean ± S.D	F - value
연령	20~29	125	47.96±16.02	10.764*** (p-value <.000)
	30~39	89	60.76±19.39	
	40~49	54	55.77±17.12	
	50세 이상	4	38.5±3.41	
학력	중졸이하	4	35.5±9.71	6.339*** (p-value<.000)
	고졸	22	47.54±18.89	
	대재(전문대포함)	96	48.33±15.69	
	대졸(전문대포함)	139	58.24±18.45	
	대학원 이상	12	56.16±20.91	
직업	학생	73	49.17±6.46	15.900*** (p-value<.000)
	전문 기술직	7	43.42±12.79	
	사무직	83	65.44±18.03	
	판매 서비스업	40	49.25±14.72	
	기타	68	47±16.22	
결혼	기혼	126	58.93±8.89	12.012*** (p-value<.000)
	미혼	145	48.60±6.22	
	기타	1		
피부건강	좋다고 생각	55	56.94±19.17	1.788 (p-value=0.169)
	보통	155	51.78±17.64	
	나쁘다고 생각	63	54.60±8.77	
외모	매우 만족	32	55.75±17.58	1.435 (p-value=0.240)
	보통	199	53.98±18.51	
	만족하지 않음	42	49.28±17.40	
주관적 피부상태	건성	63	52.98±19.23	2.285 (p-value=0.061)
	중성	34	53.17±17.93	
	지성	60	56.13±19.2	
	복합성	59	56.94±15.58	
	모름	57	47.78±18.14	

\*\*\* : p<0.001    \*\* : p<0.01    \* : p<0.05

## (2) 피부상태에 따른 피부건강관리 행위

피부상태에 따른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행위수준은 <표-15>와 같다. 피부상태에서는 건성 54.31, 지성 53.58 중성 53.13, 복합성 51.11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15> 피부 상태에 따른 피부건강관리 행위

항목	구분	명	Mean ± S.D	F- value
피부상태	건성	51	54.31±19.74	0.142 (p-value=0.935)
	중성	51	53.13± 7.42	
	지성	153	53.58±18.18	
	복합성	18	51.11±18.39	

## 5. 피부건강관리 행위의 인자분석

인자분석(factor analysis)이란 여러 변인들의 저변에 존재하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요인(factor)들을 찾아내는 통계적 기법이다.

인자분석은 여러 개의 변인 들을 그보다 적은 수의 요인으로 정리하여 자료를 축소하고 요약할 수 있으며 변인 들을 공통적인 속성의 요인 별로 정리하여 분류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즉, 인자분석은 각 변인 그 자체가 측정하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 변인들이 지니고 있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속성을 추출하는 것이다.

### 1) 각 인자별 소속변인

<표-16>는 원변수인 20개 문항을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의 Cronbach's alpha 표이고 <표-17>은 신뢰도가 적은 문항들을 제외한 최종적인 문항수 들만을 가졌을 때의 Cronbach's alpha 표이다. 행위에 관한 항목들을 Cronbach's alpha 에 의한 문항 신뢰도 분석결과로 나온 최종적인 17개 문항으로 인자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인자 <표-19>를 얻었다.

<표-16> 피부지식과 행위의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지식(항목수)	행위(항목수)
Cronbach's alpha	0.900(20)	0.889(20)

<표-17> 최종적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지식(항목 수)	행위(항목 수)
Cronbach's alpha	0.914(16)	0.904(17)

<표-18> 17개 문항만을 이용한 요인분석

성분	초기 고유 값			회전 제공한 적재 값		
	전체	% 분산	% 누적	전체	% 분산	% 누적
1	6.862	40.364	40.364	3.579	21.051	21.051
2	1.460	8.590	48.954	3.255	19.148	40.199
3	1.174	6.905	55.859	2.662	15.660	55.859
4	0.904	5.317	61.176			
5	0.818	4.815	65.991			
6	0.762	4.482	70.474			
7	0.707	4.157	74.631			
8	0.612	3.602	78.233			
9	0.542	3.191	81.424			
10	0.537	3.158	84.581			
11	0.507	2.984	87.565			
12	0.424	2.494	90.059			
13	0.414	2.433	92.492			
14	0.393	2.309	94.801			
15	0.354	2.084	96.885			
16	0.324	1.904	98.789			
17	0.206	1.211	100.000			

추출방법: 주성분 분석

<표-19> 행위의 인자 및 소속 항목

인자	소속항목
화장품 선택 및 사양	7. 고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한다
	8. 화장품 구입시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다
	9. 화장품의 기능과 방법 등을 확인 후 사용한다
	10. 피부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을 복용한다
	12. 피부 건강에 대한 책이나 잡지를 보고 따라 해 본다
	13.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를 찾는다
	19.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는 정확한 화장품을 사용한다
20. 본인이 간단하게 팩이나 마사지 등을 한다	
피부관리 전문성	2. 정기적으로 피부 관리실을 방문하여 관리를 받는다
	3.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6. 계절에 따라 피부관리 방법이 다르다
	11. 피부관리를 위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16. 피부 건강을 위해 술 담배는 피한다	
피부자가 관리형태	4. 세안 등 개인위생에 철저히 신경을 쓴다
	5. 외부에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세안을 한다
	17. 자외선이 강할 때는 그늘을 찾아 걸어 다닌다
	18. 피부 자극 방지를 위해 너무 찬물이나 뜨거운 물은 피한다

## 2) 인자별 신뢰도

피부건강관리 행위와 관련하여 추출된 3개의 인자에 대하여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20>.

내적 일관성 분석 방법을 이용한 Cronbach's alpha 값으로 검증한 결과 3개의 인자 모두에 대해서 Cronbach's alpha 값이 0.6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탐색적인 연구분야에서는 Cronbach's alpha 값이 0.6 이상이면 충분하고 자연과학적 연구 또는 중요한 결정이 요구되는 응용연구 분야에서는 0.8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직단위의 분석 수준에서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Cronbach's alpha 값이 0.6 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20> 피부건강관리 행위의 인자별 신뢰도

	인자 1 (항목수)	인자 2(항목 수)	인자 3(항목 수)
	화장품 선택 및 사용	피부관리 전문성	피부자가 관리형태
Cronbach's alpha	0.828 (8)	0.823 (5)	0.699 (4)

### 3) 행위인자의 분산분석

각 인자별로 평균비교를 한 결과 인자3(피부자가관리형태)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이는 선행연구(명은진, 2000)의 여성의 경우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인자2(피부관리 전문성)순으로 나타났으며 <표-21>, 인자1(화장품의 선택 및 사용)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선행연구(명은진, 2000)에서 여성의 경우에는 인자1(화장품선택 및 사용)이 인자2(피부관리 전문성) 보다 평균이 높게 나온 것과는 다소 다른 결과였다. 이는 ‘세안 등 개인위생에 관하여 신경을 쓴다’, ‘외부에서 집에 들어오자 마자 세안을 한다’ 등의 피부자가 관리형태는 높은 실천율을 나타낸 반면 ‘고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한다’ ‘화장품 구입시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다’ 등의 화장품 선택 및 사용에 대한 행위는 낮은 실천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들의 피부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기능성 화장품이나 전문적인 피부관리를 받을 만큼의 실천력은 약하고 경제적 부담이 없는 자가관리 형태로 피부관리에 대한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21> 행위 인자 분석

인자	명	평균 ± 표준 편차
행위인자 1 (화장품의 선택 및 사용)	275	2.32±1.05
행위 인자 2 (피부관리 전문성)	277	2.66±1.37
행위인자 3 (피부자가 관리형태)	277	3.19±.17

## 6. 지식과 행위 인자간의 상호관계

피부지식 점수와 행위의 인자별 점수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화장품의 선택 및 사용을 나타내는 행위인자1과 피부관리 전문성을 나타내는 행위인자2가 피부 지식점수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 특이한 것은 이들 관계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피부관리 전문성과 관련해 행위의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점수는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22>.

<표-22> 지식과 행위 인자간의 상관계수

인자	상관계수	p-value
행위인자 1 (화장품의 선택 및 사용)	-0.253	<0.001
행위 인자 2 (피부관리 전문성)	-0.53	<0.001
행위인자 3 (피부자가 관리형태)	-0.094	<0.122

## 7. 피부상태에 따른 지식과 행위분석

피부상태에 따라 중성피부를 정상으로 분류하고, 건성, 지성, 복합성 피부를 비정상으로 분류하여, 이에 따른 지식점수의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부상태에 따른 지식점수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3>. 또한 피부상태에 따른 각 행위인자 점수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개의 행위인자 점수 모두 피부상태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4>.

<표-23> 피부상태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 시 지식점수

항목	평균±표준편차	t	p-value
정상	52.85 ± 26.79		
지식점수		2.006	0.49
비정상	44.27 ± 28.41		

<표-24> 피부상태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 시 행위점수

	항목	평균±표준 편차	t	p-value
행위인자 1	정상	2.07 ± 0.93	0.013	0.99
	비정상	2.06 ± 0.94		
행위인자 2	정상	2.49 ± 1.21	-1.016	0.311
	비정상	2.7 ± 1.4		
행위인자 3	정상	3.14 ± 1.09	-0.365	0.729
	비정상	3.2 ± 1.19		

※ 중성피부 정상으로 규정. 지성, 건성, 복합성을 비정상으로 규정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성들의 관심도가 높아 가는 외모관리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피부관리에 도움을 주는 피부지식과 자신의 피부상태에 알맞은 관리방법을 교육하고 손쉽게 익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에 보탬이 되고자 행하여졌다.

따라서 현재 성인 남성들이 갖고 있는 피부지식 정도 여부와 자신의 피부상태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는지 여부, 피부건강관리를 얼마나 행하고 있는지 여부, 또한 피부지식과 행위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조사기간은 2006년 3월5일부터 4월15일까지 40일간 시행 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315명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회수한 결과 분석 가능한 278부만을 통계자료로 활용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별 분포가 20~29세가 46.2%로 가장 많았고 40~49세는19.9%, 50세 이상은 1.4% 이었다. 학력은 전문대졸을 포함한 대졸자가 51.1%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학생이 26.8% 사무직이 30.8%, 그 외의 기타가 24.6%이었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46.2%, 미혼이 53.4%였으며 피부건강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남성이 56.8%였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남성이 23%이었다.외모는 만족하지 않는 남성은 15.5%이고 매우 만족하는 남성이 11.5%이며 대부분의 남성은 ‘보통’이라고 생각했다. 주관적인 피부상태분류는 건성이 22.7% 지성이 21.9% 복합성이 21.9%였으며 ‘모른다’고 답한 남성이 20.9%나 되었다.

2) Men's grooming에 나온 피부측정표를 사용하여 피부상태를 측정한 결과 건성이 18.7% 복합성이 6.5%였으며 지성이 56.5%로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였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부지식은 20~29세가 가장 지식수준이 높았으며( $p < 0.001$ ), 미혼인 경우가 기혼인 경우보다 지식수준이 높았다( $p < 0.001$ ). 피부건강, 외모, 주관적 피부상태에 있어서는 각 문항별로 비슷한 지식수준이었다.

4) 일반적특성에 따른 피부건강관리 행위에서는 30~39세가 가장 행위수준이 높았으며( $p < 0.001$ ) 그 다음으로는 40~49세가 행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있어서 행위수준은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자가 가장 높았으며( $p < 0.001$ ), 그 다음으로는 대학원이상, 대재순으로 높았다. 직업에 따른 피부건강관리 행위수준은 사무직이 다른 직업군보다 높았다( $p < 0.000$ ). 피부건강이나 외모, 주관적 피부상태에 있어서는 각 문항별로 비슷하게 피부건강관리가 행하여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상태에 따른 피부건강관리 행위는 각 유형별로 비슷한 지식, 행위수준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5) 행위인자 분산분석 결과, 인자3인 피부자가관리 형태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자2인 피부관리 전문성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남성의 경우 대부분 사회활동을 하는 관계로 시간적, 경제적 이유로 적극적인 관리보다는 소극적인 관리형태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진다. 또한 남성의 경우 피부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전문적 피부관리를 한다거나 기능성 화장품을 쓰는데 있어 매우 무관심한 것으로 보여진다.

6) 지식과 행위인자간의 상관계수는 행위인자2가 피부지식점수와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

7) 중성 피부를 정상으로 나머지 피부상태를 비정상으로 규정하였을 때 피부상태에 따른 관한 지식점수와나 행위인자점수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자는 문제가 있는 피부를 가진 사람일수록 피부에 관한 관심도가 높고 이에 따라 피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며 자신의 피부관리 행위도가 높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남성들은 필요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대한 관심도나 실천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의 피부관리의식에 대한 김복희(1994년), 명은진(2000년) 등의 선행 연구와 비교해볼 때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피부에 대한 관심도와 실천력이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상에서 파악된 내용에서 주관적인 피부상태 분류와 피부측정표를 이용한 피부상태 측정을 비교하여 볼 때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피부상태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거나 아예 모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피부지식은 미혼의 경우가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수준은 기혼인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혼남성의 경우, 배우자(여성)가 실제적인 피부관리를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남성의 경우 대부분 사회활동을 하는 관계로 시간적, 경제적 이유로 적극적인 관리보다는 소극적인 관리형태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고 전문적 피부관리를 한다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쓰는데 있어 매우 무관심한 것으로 보여진다.

외모지향주의가 팽배해져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남성들도 여성 못지 않게 외모에 관심을 쏟고있고 그 관심의 한 일환으로 남성전용 화장품이나 남성전용 피부관리실이 늘어가는 추세이기는 하나 그에 반해 남성들의 피부에 관한 지식은 매우 낮은 편이며 실천행위 자체는 선행연구(명은진, 2000)에서 여성과 비교해볼 때 매우 낮은 편이었다.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하는 사회여건상 피부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대중매체의 이용률이 낮은 점, 아직은 대부분의 피부관리실이 여성을 고객으로 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드나들기 힘든 상황, 획일적이고 단순한 남성화장품 등이 그러한 원인 중에 속할 것이다.

남성들에게는 전문적 관리나 지식보다는 간편하고 손쉬운 관리로부터 실천력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고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한 피부기초지식을 교육하고 이해시켜 스스로 피부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일깨워야 하겠다.

보다 다양하고 기능적인 남성화장품의 개발을 통해 남성들이 자신의 피부상태에 따른 바른 피부건강관리가 행하여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부지식이나 관리법을 교육할 수 있는 방안 및 홍보자료개발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추후연구를 위해 제언을 한다면,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므로 표준화된 전문적인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역을 폭을 넓혀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겠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좀더 정확한 피부상태 측정을 위해 피부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 및 기준자료를 사용한다면 보다 정확한 피부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김명숙. 피부관리학. 현문사, 2006
- Dr.R.A.Eckstein. Biokosmetik. 중원코스메틱, 1993
- Men's Grooming. Book Company, 2002
- 곽형심외 8인. 미용학개론. 정문각, 1999
- 강수정. 에스테틱 개론. 청구문화사, 2000
- 김기연. 피부관리학. 수문사, 1993
- 김병우. 피부과학·향장품학. 유산문화사, 1996
- 명은진. 20,30대 여성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및 행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지수. 성인남성의 피부관리에 대한 지식 및 행위에 관한 조사연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배향선. 남자대학생들의 피부관리 실태와 관련요인 조사연구.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권순분. 20대 남자대학생의 화장품에 대한 지식 및 구매행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양은순. 일반인이 지각하는 피부미용관리에 대한 주관성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정은진. 성인남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화장품 구매행동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 김복희. 여성의 피부미용관리와 화장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신윤호. 우리나라 성인 남성화장품의 구매행동에 관한 실증적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국홍일. 건강한 피부고운 살결. 지문사, 1988
- 이유득, 지혜구의. 여드름 뿌리뽑기. 중앙 M & B, 2000
- 김해남. 기초피부관리학. 정담출판사, 1999
- 김주환. 우리나라 화장품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최정숙, 곽형심. 여성의 기호성과 피부관리습관에 따른 피부상태의조사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3(1), 1997
- 김광옥. 20대 여성들의 피부분석을 통한 피부각질층 상태 조사연구. 한국미용학회지2(1), 1996
- 송건용, 박현애, 이순영, 김태정. 의료이용과 건강행위에 관한 종합분석.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1993
- 조광현. 노화에 따른 피부조직의 변화. 대한 피부연구학회지5, 1998
- 박경식. 기능성 화장품 관리동향과 개선방안. 보건산업기술동향, 2002
- 대한화장품 공업협회. 화장품 산업 현황과 발전방향. 2002
- 조영옥. 여성과 화장품. 건강소식(10), 1993
- 이주연, 강병호. 식습관이 미용에 끼치는 영향 실태조사. 한국미용학회지4(1),1998
- 김복희, 남철현. 여성의 피부미용관리와 화장실태에 관한조사연구. 보건협회지21(2), 1995
- 김봉인. 중년여성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태도와 실천행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Evan R. Farmer, Antoinette F. Hood. Pathology of the Skin. Appleto Lange. A Publishing Division of Prentic Heal, 1990

- Ernst, E., Massage therapy for low back pain. *Journal of Pain & Symptom Management*17(1), 1999
- Lerner, R, D. S. Ko, G. Klose, A. B. Cosimi, Effective treatment of lymphedema Of the extremities. *Archives of Surgery*1339(4), 1998
- Muzzuddin , N., K. D. Marenus, D. H. Maes, Factors defining sensitive skin and its Treatment. *American Journal of Contact Dermatitis*9(3), 1998

## **Abstract**

### **A Study of the Knowledge and the Management of Skin health among the male adults in Korean Society**

**Kim, sook Eun**

Skin care and Obesity Management Major

Department of Cultural Industry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oday, male adults have made ceaselessly their efforts in order to enhance their market value under the competitive society. One of the efforts which develops competitive power might be the management of outward appearances. Today's Koreans have invested their energy for the management of outward appearance which tied up with the trend so called 'well-being' life style in the rivalry society.

This study focused on the male adults' skin care. The research engaged in Korean male adults' knowledge of skin care, their commitment to skin care, and the reciprocal interrelatedness between the two facts. Hopefully, the writer expects that this research will be the cornerstone to build an educational system of men's skin care.

The data, analyzed here, was gathered from the survey among three hundreds fifteen men age-ranging from the 20' to the 50'. The survey was carried out from March 5<sup>th</sup> to April 15<sup>th</sup>. However, among the answered questionnaires, eligible two hundred seventy eight were analyzed by dint of the professional window program for statistics, that is, SPSS 12.0. The survey suggested the following consequences.

1) Of these questioned, 46.2% were the 20.' College graduates were 51.1%. 46.2% were married, 26.8% were students, and 30.8% white colors. 56.8% of questioned answered that they did not have any specific skin trouble. Most of them believed that their outward appearances were average except for 27% of them. They answered their facial skin were oily (21.9%), dry (22.7%), and moderate (20.9%). The remnant of them did no answer (20.9%).

2) Measured by *Men's Grooming*, dry facial skin were 18.7% among the answered, moderate 6.5%, and oily 56.5%.

3) The men of twenties ( $p < 0.001$ ) and the married ( $p < 0.001$ ) have had relatively good amount of general knowledge of skin care. However, there was any specific difference between the answered regarding the knowledge about skin health, outward appearance, and the condition of facial skin.

4) The age of 30' has been taken the general skin care with highest frequency ( $p < 0.001$ ). The more educated, the more frequently they were taken skin care ( $p < 0.001$ ). Additionally, the

white color ( $p < 0.001$ ) and the married ( $p < 0.001$ ) were taken general skin care more than the groups of blue color and the bachelors. However, there was not any wide range of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regarding the concern about appearance, management of healthy skin, and managing skill based upon the status of facial skin. Thus, it deserved to ignore the consequences.

5) The survey suggested that most of men took self-caring of skin. This might reflect that male adults in Korea could not be afford to professional care of skin because of financial reason. Also, The reason that they could not afford the time drove them to self-care of their skin. Finally, men's less concern for skin care forced them not to use special functional cosmetics and take professional skin care. To sum up, the budget, less concern, and the time were the most crucial elements that resulted in men's self skin caring rather than the professional.

6)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nowledge of skin care and the groupings, the group 2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points of knowledge of skin care ( $p < 0.001$ ).

7) Finally, if the moderate skin was defined as normal, oily, dry, and complex skin abnormal, there was less association between men's knowledge of skin care and their aggressive actions for their problematic skins. In other words, prior to this research, the writer surmised that the more a man had skin troubles, the more he had deep concern and knowledge about skin, and the more he acted something for his skin. However, this research

demonstrated that, regardless of the condition of skin, male adults in general had less concern and did less care for skin rather than female adults. This was already supported by the preceding researched such as Bok-Hee Kim(1994) and Eun-Jin Myung(2000).

Based on this research, most of males did not grasp the exact condition of their own skin and, sometimes, they did know nothing at all about the skin care. Interestingly, even though the married men had less knowledge about skin care rather than the bachelor group, the married was taking skin care more that the latter. This means that unprofessional skin-cares have been made by the spouses (wives) within the family. Finally, based on this research, the writer suggested that the development of cosmetics for men, of educational system, and of guideline materials for men's skin care should be required in order for male adults to take care their own skin with health.

<부록>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남성의 피부지식 및 피부건강관리 행위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전산처리 되어 통계자료로만 사용되며 결코 연구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며 앞으로 여러분들의 올바른 피부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부탁 드리며 한 문항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신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06. 3.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피부비만관리학 전공  
김 숙은

[ 일반적인 사항 ]

1. 연령

- 1) 20 ~ 29세 ( )                      2) 30 ~ 39세 ( )  
3) 40 ~ 49세 ( )                      4) 50세 이상 ( )

2. 학력

- 1) 중졸 이하 ( )                      2) 고졸 ( )  
3) 대재(전문대 포함) ( )                      4) 대졸 (전문대 포함) ( )  
5) 대학원 이상 ( )

3. 직업

- 1) 학생 ( )                      2) 전문 기술직 ( )  
3) 사무직 ( )                      4) 판매 서비스업 ( )  
5) 기타 ( )

4. 결혼상태

- 1) 기혼 ( )                      2) 미혼 ( )  
3) 기타(이혼, 별거, 사별 등) ( )

5. 귀하의 피부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좋다고 생각한다 ( )                      2) 보통이다 ( )  
3) 나쁘다고 생각한다 ( )

6. 귀하의 외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만족하다 ( )                      2) 보통이다 ( )  
3) 만족하지 않는다 ( )

7. 귀하의 주관적 피부 상태는 어디에 속합니까?

- 1) 건성 ( )                      2) 중성 ( )  
3) 지성 ( )                      4) 복합성 ( )                      5) 모름

[ 피부지식관련문항 ]

구분	문항	그렇다	그렇지않다	모른다
1	정상 피부란 pH 4.5 - pH 6 사이 즉 약산성 상태를말한다.			
2	여드름이 있는 경우 유분기가없는 화장품을 사용하는것이 좋다			
3	수면 부족은 피부 건조화 및 탄력저하 현상을 초래한다			
4	여름에는 그늘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			
5	술을 많이 마시면 피부가 붉어질 수 있다			
6	피부 노화는 25 세 전 후부터 시작된다			
7	비누 세안은 자주 할수록 피부 건강에 좋다			
8	피부 상태는 신체 건강 상태와 상관이 없다			
9	흡연은 피부 표면의 수분 양을 감소 시킨다			
10	지성 피부에 알코올 함유량이 적은 화장수를 사용한다			
11	피부가 얇을수록 예민하다			
12	때밀이 타올로 매일 목욕하는 것이 피부에 좋다			
13	계절에 따라 피부에 변화가 생긴다			
14	스트레스와 피부 상태와는 상관이 없다			
15	여드름은 유전과는 관련이 없다			
16	변비가 있으면 피부가 거칠어 진다			
17	사우나를 자주 하는 것은 피부 처짐의 원인이 된다			
18	비타민 E (토코페롤)는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다			
19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진다			
20	자외선에 피부를 태우는 것은 피부건강을 위해 좋다			

[ 피부건강관리 행위관련문항 ]

구분	문항	그렇다	때때로한다	그렇지않다
1	피부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취침하고 기상한다			
2	정기적으로 피부 관리실을 방문하여 관리를 받는다			
3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4	세안 등 개인위생에 철저히 신경을 쓴다			
5	외부에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세안을 한다			
6	계절에 따라 피부관리 방법이 다르다			
7	고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한다			
8	화장품 구입시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다			
9	화장품의 기능과 방법 등을 확인 후 사용한다			
10	피부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을 복용한다			
11	피부관리를 위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12	피부 건강에 대한 책이나 잡지를 보고 따라 해 본다			
13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를 찾는다			
14	자극적인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다			
15	집에서 매일 스킨, 로션을 바른다			
16	피부 건강을 위해 술 담배는 피한다			
17	자외선이 강할 때는 그늘을 찾아 걸어 다닌다			
18	피부 자극 방지를 위해 너무 찬물이나 뜨거운 물은 피한다			
19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는 정확한 화장품을 사용한다			
20	본인이 간단하게 팩이나 마사지 등을 한다			

[ 피부상태 측정표 ]

피부상태	뺨/턱 주변 (U 존)		
	전혀아니다	그냥그렇다	정말그렇다
1.오후가 되면 얼굴이 항상 변들거린다			
2.먼지가 잘 달라붙어 쉽게더러워지고 끈적거린다			
3.모공이 넓고 거뭇거뭇한 피지가 눈에 많이 띈다			
4.여드름이나 뽀루지가 잘 생긴다			
5.건조하고 주름이 잘 생기는 편이다			
6.피부결이 거칠고 푸석푸석하다			
7.가을,겨울에는 각질이 하얗게 일어난다			
8.세안후 아무것도 바르지 않으면 피부가 당긴다			

피부상태	이마/코 부위 (T 존)		
	전혀아니다	그냥그렇다	정말그렇다
1.오후가 되면 얼굴이 항상 변들거린다			
2.먼지가 잘 달라붙어 쉽게더러워지고 끈적거린다			
3.모공이 넓고 거뭇거뭇한 피지가 눈에 많이 띈다			
4.여드름이나 뽀루지가 잘 생긴다			
5.건조하고 주름이 잘 생기는 편이다			
6.피부결이 거칠고 푸석푸석하다			
7.가을,겨울에는 각질이 하얗게 일어난다			
8.세안 후 아무것도 바르지 않으면 피부가 당긴다			

